

이흥재의 세상만사



요즘 온라인을 후끈 달구고 있는 글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못났으면 5·18 광주정신을 저버리고 민주주의 정체성마저 훼손하는 올드보이에게 운명을 맡긴단 말인가?”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당권을 못 쥐도 5·18 광주학살 국보위 멤버 김종인한테는 전권을 주나 보다.”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뒤 쏟아진 반응들이 다. 도대체 국보위가 무엇이길래 이런 격한 반응들이 나오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국보위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기관이었다. 정식 명칭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전두환 신군부가 5월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1980년 5월 31일 정치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였다.

그럼 국보위가 한 일은 무엇이었던가. 전국 비상계엄하에서 각 부처의 공직자 숙청과 함께 강제

로 언론을 통제하고,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수많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했으며 심지어 폭숨까지 빼앗기도 했다. 초헌법적인 조처들이 국보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 국보위에 재무부와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계에 처음 발을 내디뎠다. 정통성이 없었던 전두환 권위주의 체제 구축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정치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그랬던 인물이 이제 제1야당의 사실상 대표가 됐다. 어찌 이럴 수가.

국보위 출신 야당 대표 ‘웬열’?

그가 어떤 연유로 국보위에 참여하게 됐지는 알 수 없다. 어찌 ‘부가가치세 폐지를 위해 들어갔다’고 해명한 그의 말은 공색하기만 하다. 그보다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추측하건대 전두환 정권의 강압에 못 이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이 들다 보니 자꾸만 모든 일에 너그워지는 것을 아쩔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한다 해도 그가 야당 대표라니, 이 건 아니다. 아닌 이유는 그것 말고도 무수히 많다. 그의 이력이 모든 걸 말해 준다. 서강대 교수였던 김 위원장은 앞서 말한 대로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의 국보위에 참여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5공 정권에서 두 차례나 민정당 비례대

사람이 그렇게도 없더라 말인가

표 의원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 때도 보사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계속 승승장구(乘勝長驅)했다.

주로 집권여당이었던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며 비례대표(전국구 포함)로만 국회의원 4선의 ‘진기록’을 수립한 그를 보면 한(漢) 무제(武帝) 때의 정치인 공손홍(公孫弘)이 떠오르기도 한다. 공손홍은 늘 황제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철저히 따랐다. 그렇게 해서 동중서(董仲舒)로부터 ‘곡학(曲學) 아세(阿世)하는 아첨꾼’이라며 경멸을 받기도 했지만 당시 재상들의 수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80세까지 승상(丞相)의 지위를 누렸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나드는 김 위원장이 뛰어난 책사(策士)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정치 철학과 관계없이 자신을 불러 주는 주군에게 몸을 의탁한 사람’(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라는 말도 듣는다. 권력을 좇아 부초(浮草)처럼 휩쓸려 다닌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다.

정통야당의 수장(首長)이라면 덕망은 물론 어떤 정치 철학이나 확고한 신념 등을 갖춰야 할 터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는 아무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국보위 출신인 것도 모자라 그에게는 비리(非理) 전력이 있다. 경제수석 시절에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구속된 바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는 “내가 검사 시절 그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고 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안에는 “기소만 대도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그는 영입은커녕 배제 대상에 올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1996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사법 처리되기도 했던 그는 그렇게 잊혀지나 싶었지만 2004년 새천년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영입되면서 4선 고지를 밟게 된다. 당시 ‘반노(반 노무현) 진영에 선 것이다. 그러다가 2011년에 ‘안철수 멘토’로 언론에 잠깐 등장했다가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으로 영입됐다.

문재인 씨 당신은 누구세요

김 위원장이 대선 당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은 뒤, 곧바로 용도폐기되긴 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다섯 글자를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이 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바다. “박근혜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숙을 했다. 하는 이런 느낌이 받았어요. 사실은 내 스스로가 한번 대통령 박근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는 그가 2012년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다. 김 위원장 스스로 권력의 품에 찾아들었다는 고백이리라.

이런 그의 행적(行跡)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는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문 대표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다. 과거(2014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중앙대 이상돈 교수의 영입은 그도 무언이 어떻게 다른 지도 알 수 없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연(外延) 확장도 좋지만 이 원칙 없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을 어찌해야 하나. 이제 야당의 정통성은 여지없이 훼손되고 말았다. 그렇게도 사람이 없더라 말인가, 통탄할 일이다.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표는 때면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사퇴 표명 시기 또한 그랬다. 너무 늦은 것이다.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라더니 결국 김종인 위원장 영입이라는 자충수(自充手)를 두고 말았다. 그러고서 뒤늦게 야권 연대를 제안하고 있으니, 그럴 거면 모두들 나간다고 할 때 분당(分黨) 사태는 왜 방치했을까? 안타깝지만 버스(호남 민심) 떠난 뒤 손 흔들고 있는 격이다.

“문재인, 당신은 누구세요? 새정치연합을 깨고 국보위 출신 김종인에게 야당을 팔아먹고 연대와 통합을 부르짖는 문재인 씨, 당신은 누구세요?”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통렬하다. (주필)

광주-대구고속도로 개통 한달... 교통량 20% 늘고 사고 확 줄어

‘죽음의 도로’서 ‘상생의 도로’ 됐다

광주-대구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은 20% 가까이 늘어난 반면 교통사고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의 도로’에서 ‘상생의 도로’로 탈바꿈한 것이다.

향후 양지역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면 교통량의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문화적인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통한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지난 한 달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 한 건에 불과했고 부상자도 1명에 그쳤다. 1년 전 같은 기간 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는 3건(부상자 2명)이었고, 2013년 같은 기간에는 6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한 것과는 대비된다.

왕복 2차로였던 88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 없이 좁은 도로폭과 잦은 급경사·급커브 구간들로 인해 지난 1984년 6월 개통 이래 31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770명에 달해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써야 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88고속도로에서 연평균 66.7건의 교통사고와 1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국 고속도로 평균 사고건수의 1.5배

가 넘고 km당 사망자 수도 연간 0.05명으로 전국 고속도로 평균치(연간 0.03명)의 2배나 됐다.

차량 통행량도 대폭 늘었다. 광주-대구 운행 시간이 2시간 12분에서 1시간 40분대로 30분가량 단축되고 도로의 안전성도 확보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행하는 차량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개월 교통량은 98만3622대(일 평균 3만278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83만7074대)보다 17.5% 늘었다.

/김형희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올 첫 징병검사 광주·전남지역 올해 첫 징병검사가 21일 광주시 동구 학동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 대상자들이 혈압검사를 받고 있다. 지역 징병 대상자는 올해 19세가 되는 1997년생 2만4100여명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립공원 탐방객 4533만명 ...무등산 361만명 '3위'

지난해 무등산을 찾은 탐방객이 36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가운데 세번째로 많은 탐방객이 다녀간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1일 지난해 무등산을 비롯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 수가 4533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

다. 이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탐방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여수와 경남 통영 사이의 해역과 해안을 끼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방문객은 전년보다 14.4% 늘어난 705만여명이었다. 공단 측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방문객 증가의 이유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운영

한 여수 오토도 지구의 케이블카를 들었다. 다음으로, 탐방객이 많은 곳은 637만 2000명이 찾은 북한산국립공원이었다.

무등산의 경우 361만명 수준으로, 전년(381만명) 대비 5.5% 줄었다. 무등산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사무소 기준으로는 무등산사무소 320만명, 무등산동부(화순 등) 41만명 수준으로, 여전히 중심사·원호사 지역으로 탐방객이 집중되고 있다.

/김형희기자 khh@kwangju.co.kr

문화전당서 ‘세계 웹콘텐츠 페스티벌’

ASEM 개최 6월 23~26일

차세대 트렌드를 이끌어갈 웹 콘텐츠가 한곳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웹 콘텐츠는 웹툰, 웹소설, 웹드라마 등을 일컫는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1일 ‘세계

웹콘텐츠 페스티벌’을 아시아 유망정착의(ASEM·6월 23~26일) 기간에 맞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억원(국비5·시비5억원)이 투입되며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다.

페스티벌은 ‘탑 크리에이터 타운’, 국제 컨퍼런스, 비즈마켓 등으로 구성된다. 탑

크리에이터 타운은 아프리카TV 등 멀티채널네트워크(MCN)에서 활동하는 인기 BJ들을 초청해 배틀토크, 팬사인회 등을 진행한다. 연연인 일일마케팅, e스포츠경연대회도 펼쳐진다.

또 웹콘텐츠 관련 기술과 장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국내 인기 웹창작자들의 제작이야기를 듣는 ‘영상제’ 등도 마련된다. 문의 062-610-2451.

/김형희기자 kimyh@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상상,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27~36세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공무원, 교사 32~58세
대기업 간부 36~59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등산 여성' 희망 31~58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육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면접준비실전과정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찰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우선하여 드립니다.